



#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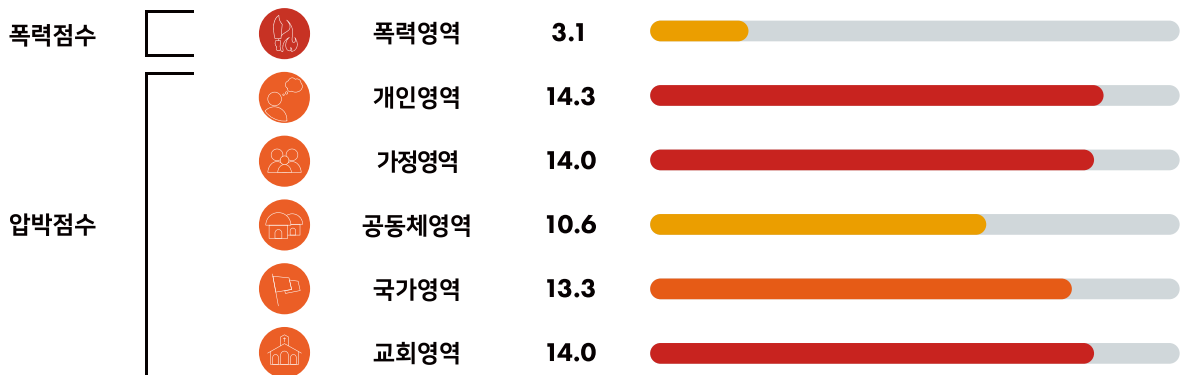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국

31 위

## 오만 (OMAN)



###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영역박해지수는영역별로 16.7점을만점으로책정한다. 영역별총합은100점이다(6x16.7=100)

### 중요한 발견

오만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해외 거주 기독교인과 이슬람에서 개종한 개종자들이다. 개종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신앙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직장 and 집에서 쫓겨나고 자녀 양육권과 상속 문제를 당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해외 무슬림은 해외에서도 자국 공동체 또는 민족 공동체 내에서 살기 때문에 모국에서와 비슷한 압박을 받는다. 해외 기독교 공동체는 관용적이긴 하나, 시설은 제재를 받고 정치적 성명과 모임이 감시되고 정치적 발언과 오만인이 참석하였는지 여부를 기록한다. 모든 종교 단체는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 오만 (OMAN)

## 국가 정보

지도자 : 술탄 하이탐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인구 : 5,412,000명

기독교인 수 : 196,000명<sup>1</sup>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전체 군주제



##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96,000	3.6
무슬림	4,859,000	89.8
힌두교도	275,000	5.1
불교도	32,200	0.6

출처<sup>2</sup>

오만은 2020년부터 술탄 하이탐 빈 타리크가 군주로서 통치하고 있는 군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Middle East Concern (MEC 오만 보고서)에 따르면, "오만의 기본 법은 이슬람을 국가의 종교로, 이슬람 입법의 기초로 규정한다. 이슬람 행정부는 이슬람 활동을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을 면밀히 규제하고 감시한다. 모스크 내에서는 승인된 메시지만 전할 수 있다. 비무슬림 예배는 술탄이 기증한 땅에서 공식적으로 목적이 지정된 건물에서만 허용된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오만에서 활동이 지정된 건물에서만 제한되고 개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무슬림과의 교류를 피한다면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고 보고하였다.

모든 국민과 해외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과 교회도 온라인 활동이 감시 되고 있으며 대중 앞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오만 사람들은 이바디스 (Ibadis) 라는 오만 고유의 이슬람을 실천하는데, 이는 "온건한 보수주의"로 특징지어지며 금욕과 관용이 혼합되어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바디스는 이슬람을 떠난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인에게 관용적인 경향이 있어 오만은 국제적으로 관용과 외교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오만인과 전도에 참여하는 해외 거주 기독교인에 대한 압력은 매우 높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해외 거주자이며,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필리핀, 인도와 서방 국가 출신이다.

##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오만 사회는 여전히 매우 부족 중심 사회이며, 기독교인에 대한 압박 수준은 도시보다 (예: 무스카트) 농촌 지역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와 가족의 통제는 농촌 지역에서 더 높은 반면, 도시 지역은 개종자들이 익명으로 살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

<sup>1</sup>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sup>2</sup>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북부 무스카트와 소하르, 남부 살랄라와 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개신교 등 여러 외국인 공동체가 있다. 자국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박해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기독교 개종자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자신의 새 믿음을 버리라는 압력을 받는다. 또한 이슬람을 떠난 아버지에게는 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박해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 이슬람 탄압

오만의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강도 높은 압박을 받으며, 이들은 개종을 가족의 명예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집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이나 레반트 등 다른 지역에서 온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의 경우 주변 지역 사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 한 오만 정부를 두려워할 필요는 적으나 오만 고용주는 해고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없으면 추방될 수 있다. 개종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오만의 개종자들은 공무원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모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법적 문제와 직장과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선교는 불법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선교로 인해 공식적으로 기소된 기독교인은 없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적법 절차 없이 국가에서 추방된 사람들도 있다.

### 싸족의 압박

부족의 가치는 이슬람의 가치와 혼합되어 있다. 오만인이라는 것은 무슬림이라는 의미이고, 이슬람 신앙을 버리는 것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명예이자 수치이다. 그러므로 개종자들은 배척을 당하거나 이슬람교로 돌아가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

### 독재 정치

Freedom House는 이 국가를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평가하고 (Freedom House/ Global Freedom 2023), "이 정권은 사실상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과 반대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린다"고 언급했다. 언론도 괴롭힘과 위협을 당하고 있다. 새로운 술탄 체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력은 더욱 커졌으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개종이나 정부 비판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자기 검열을 적용한다.



##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 여성

오만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아버지, 남편, 남성 보호자에게 상당한 통제를 받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여성은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고 자신의 종교적 의견을 가질 수 없다.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가택 연금에 직면하고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미혼 개종자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받으며 무슬림과 강제 결혼의 압력을 받고, 기독교인 가사 노동자 경우에는 대부분 성적 학대와 노예 취급을 받는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회 공동체/ 연결망 접근 금지
- 자녀 양육권 박탈
-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할 법적 능력 거부
- 종교적 복장 강요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가택 감금
- 폭력-신체적/ 성적/ 언어적

### 남성

오만에서는 무슬림 남자가 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개종자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사회적 배척을 당하거나, 가족에게서 재정 지원을 잃는다. 또한 사회의 연결망을 잃어버려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결혼한 경우 자녀 양육권을 잃고 이혼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개종자들은 집에서 추방되어 극도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남성이 겪는 전형적인 압박 지점들:

- 사회 공동체/ 연결망의 접속 금지
- 자녀의 양육권 박탈
- 교육을 통한 차별과 괴롭힘
- 사업/직장/ 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폭력-언어적

##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31	69
2023	47	65
2022	36	66
2021	44	63
2020	42	62

폭력 점수가 교회 영역에 0.6점에서 3.1점으로 상승한 이유로 압박 점수가 4점 상승하였다. 이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 때문이다.



## 보고 기간 동안 폭력 사례들

- 오만의 기독교인들은 특히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로 알려진 사람은 보안 기관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 자체 검열을 강요받는다. 이 사건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추가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대부분의 오만인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숨긴다. 그들은 가족 규범을 어기는 것에 대한 높은 경각심과, 오만과 다른 걸프지역 국가에서 자신의 새 믿음을 드러내는 개종자에게 가족이 가하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결과를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다.
- 해외 기독교 공동체는 계속 감시받는 상태에 있고, 자주 자가 검열을 해야 한다.

### 개인 영역

해외 기독교인이 자신의 기독교 믿음에 대해 공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전도로 기소되고,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만은 이슬람이 국교인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개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족 사회의 문화를 고려할 때 개종자들은 배척 당하고 가족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회 보장을 잃게 된다.

### 가족 영역

모든 오만 부모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비 무슬림 자녀들은 공립 학교의 이슬람 수업을 면제 받을 수 없다. 개종한 남편은 이혼 시 양육권을 잃게 된다. 개종한 아내의 경우도 같으나,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여성에게 있다.

### 공동체 영역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나 전도자로 의심되는 해외 거주자는 정부와 사회의 감시를 받고, 이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인지되면 보안 당국에 보고된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괴롭힘이나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오만과 같은 부족 사회에서는 보통 가족 관계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다. 개종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기독교인 해외 거주자들은 차별을 겪는다. 그들의 기독교 믿음은 인종차별이 만연한 요인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

### 국가 영역

오만 헌법은 (제 28조) "종교적 권리를 실행할 자유"를 보장하나, 오직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에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자유는 없다. 기독교인들은 정부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려 한다. 오만 사회에 명확한 이익을 제공하는 기독교 조직 (예: 병원)만 환영받는다.

### 교회 영역

교회는 자체 검열을 적용하고 대중 활동을 조직하거나 전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량의 기독교 자료를 인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종자를 모이게 하는 모든 교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교 자료의 출판, 수입, 배포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을 수입하기 위해 자체 경로를 사용할 수 없다.



##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오만은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2. 여성차별철폐 협약 (CEDAW)
3. 아동 보호 권리 협약 (CRC)

오만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 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의 자녀들이 무슬림 종교 교육에 강요를 당하고,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는다. (CRC 제14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납치를 당하고,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 (CEDAW 제16조)

##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힌두교도, 불교도, 비-이바디스 (non-Ibadis) 무슬림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 (IRFR 2022 오만)는 다른 비무슬림 단체는 지정된 장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만 과밀이 여전히 문제이며,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사적인 장소에서 모이는 경우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에 등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이맘 (Imam)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스크는 무허가 이맘의 설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허가받은 이맘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이슬람 사원에서 정치적 불만을 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오만에서는 무신론을 의심의 눈으로 본다. 술탄 카부스 대학에서 이틀간 열린, "무신론과 일신론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무신론은 "행동 심리학적 문제"로 구분되었다. 이 행사에는 그랜드 무프티를 비롯한 종교 고위급 관리들이 참석하였다. (Oman Observer, 2022년 5월 24일)





## 오픈도어의 오만 사역

오픈도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신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 후원을 일으키고 있다.

